“아버지와 함께 서해바다 지키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바다 수호’ 조승래 해양경찰청 경위·딸 조현진 해군 하사

해군 출신 부친 영향으로 입대…목포 3함대 광주함 근무
“국민 신뢰받는 군인 될 것” “성장해 가는 딸 모습에 뿌듯”

“저에게 바다는 아버지의 공간이자, 아버지와 저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자연스레 아버지와 같은 해상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리 바다를 수호하는 부녀가 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 조현진(21·여) 하사는 조승래(56) 해양경찰청 경위의 딸로, 아버지는 해양경찰, 딸은 해군으로 대한민국 서남해역을 지키고 있다. 제3함대사령부는 목포에 있으며 제주, 경상, 전라 해역방어 등을 맡고 있다. 조 하사는 광주함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해군에 입대한 조 하사가 전투복을 입은 데에는 조 경위의 영향이 컸다. 조 경위도 해군 출신이다. 해군 소위(학군 35기)로 임관해, 상선 항해사를 거쳐 해양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다.

“평생을 바다에서 생활했던 아버지가 들려주는 항해·함정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망설임 없이 해군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해군의 꽃’이라는 갑판 직별을 선택할 때에도 생소한 업무와 다양한 훈련 때문에 선택을 주저했지만 ‘아빠가 버티고 걸어온 길이기에 반드시 나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격려로 용기를 얻었지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 국민이 신뢰하는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

조 하사는 해군으로 복무하며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주무실 때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직접 함정 생활을 해보니 침실 소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된 함정 근무를 체감한 뒤에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임관 후에는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재밌고 더욱 와닿는다. 항해를 나가면서 멀어지는 육지를 보면 가족들 생각이 커지는데, 아버지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리움을 참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 하사는 부녀가 함께 같은 해역(서남해역)을 수호하고 있는 게 보람 있다고 했다.

“아버지와 같은 서남해역을 지키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달려올 것 같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먼 바다는 딸이, 연안은 아버지가 지켜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며 안심된다고 하셨어요.”(웃음)

조 경위는 “동료들은 함께 해역을 수호하는 우리 부녀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부녀 역할이 바뀐 것 아니냐는 농담을 한다”고 귀띔했다.

조현진 하사(왼쪽)와 조승래 경위가 3함대사령부에서 서남해역을 배경으로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3함대사령부 제공〉

조 하사는 서남해역을 지키는 3함대 광주함으로 발령받은 후 조 경위의 얼굴을 자주 볼 것만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신, 명절에도 뵙지 못했다”며 “‘불 빛 없는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바다에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경위는 “근무지에서 보면 3함대 부두가 잘 보인다. 딸 생각에 3함대 쪽을 자주 쳐다봤다. 수리창에서 경비정 수리를 받을 때 딸의 얼굴을 마주쳤지만, 딸을 믿고 멀리서 바라보는 데 만족했다”고 아쉬워했다.

부녀는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가정의 달을 맞아 딸의 근무지인 3함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조 경위는 “훗날 성장해 있을 딸의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벅차 오른다. 아빠를 바다에 양보했던 딸에게 이제는 바다를 양보하게 됐다. 내 뒤를 이어 우리 바다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허정승씨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경연에서 7일 허정승(42·전남·사진)씨가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으며 명창 반열에 올랐다.

허씨는 이날 오후 춘향제의 하나로 전북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판소리 흥보가의 ‘박 타는 대목’을 열창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는 아버지 권유로 12살 때 소리에 입문했으며 국립 국악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하고 현재 진도에 있는 국립 남도국악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혜란·김순자·안숙선 명창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성음도 좋고 공력이 특히 뛰어났으며 너름새와 해학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허씨는 “첫 출전에 대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 더 공부에 매진해 우리 소리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은 신정혜, 우수상은 김대일, 장려상은 노은주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3000만원을 준다.

/연합뉴스

‘묵자’ 첫 완역 전북 한학자 기세춘씨 별세

묵자(墨子)를 국내 처음으로 완역한 한학자이고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의 부친이기도 한 기세춘〈사진〉씨가 6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5세.

1937년 전북 정읍에서 조선 중기 성리학자 기대승(1527~1572)의 15대손으로 태어난 고인은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 공무원을 거쳐 시인 신동엽이 편집주간으로 있던 ‘교육평론’에서 취재부장으로 일했다. 1963년 동학혁명연구회를 발족시켰다가 당시 이 연구회 학술위원장을 맡았던 신영복(1941~2016) 전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됐다.

고인은 1992년 묵자를 완역한 책 ‘묵자-천하에 남이란 없다’ 상하권(나루)을 펴냈다. 문익환(1918~1994) 목사와 이 책에 대해 주고받은 서신이 1994년 ‘예수와 묵자’(일월서각)라는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다.

1994년 신영복 전 교수와 함께 ‘중국역대시가선집’ 4권(돌베개)을 냈고, 2002년에는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새로 읽기’ 시리즈로 유가·묵가·도가·주역을 출간했다.

/연합뉴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기념행사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전명우)은 지난 6일 제 50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복지관을 방문, 다채로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제공〉

산단공 광주본부, 아동센터에 어린이날 후원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상현)는 최근 어린이날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양산동 상상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했다. 〈산단공 광주본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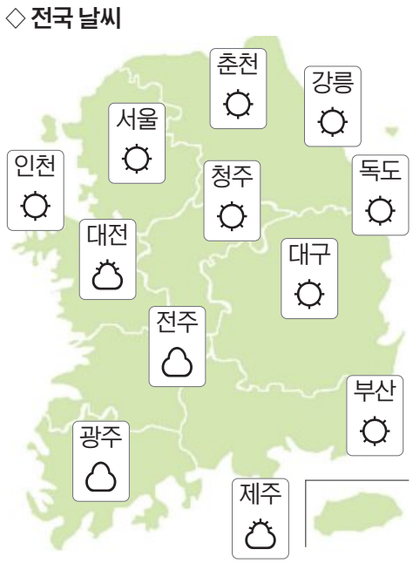
해뜸	05:34	달뜸	12:02
해짐	19:24	달짐	01:45

구름 잔뜩 낀 날

대체로 흐리고 낮밤 기온차 크겠다.

광주	흐림	13/23	보성	구름많음	11/21
목포	흐림	13/21	순천	구름많음	13/23
여수	흐림	13/20	영광	흐림	12/21
나주	흐림	12/25	진도	구름많음	12/22
완도	맑음	13/21	전주	흐림	12/23
구례	구름많음	12/23	군산	흐림	11/21
강진	흐림	12/23	남원	구름많음	12/22
해남	구름많음	11/22	흑산도	구름많음	13/19
장성	흐림	12/2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먼바다(북)	0.5~1.0	0.5~1.0
	먼바다(남)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5
	먼바다(서)	0.5~1.5	1.0~2.0
	먼바다(동)	1.0~2.0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3:44	07:33
	--:--	19:38
여수	09:22	02:40
	21:20	15:16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10(화)	11(수)	12(목)
12/23	15/26	16/26
13(금)	14(토)	15(일)
15/24	12/23	12/24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조덕선(SRB미디어·무등일보 회장)·차미임씨 장남 휘석(사랑방미디어 이사)군, 은봉환·이현숙씨 딸 소명양=14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하우스오브드메르 1층 지젤 홀 070-8822-3775.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모집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부음

▲이예순씨 별세, 최승열(광주일보 광산주재 부국장)씨 모친상 = 발인 10일 오전 7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빛장례식장 4층 특실 062-452-4000.